

행복한교회 목장 예배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목녀님들께 배포해드린 목장모임 표준안 참조)

1. 식사 모임 (애찬)

-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밥=가족, 간식=손님).
-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녀와의 시간 (올리브 블레싱)

- 자녀가 한 명(태아포함)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올리브블레싱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공동체(목장)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찬양 1-2곡을 부릅니다.
- 나이순으로 감사한 것과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눕니다(목회일기에 포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목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없을 경우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 올리브블레싱 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목장을 따로 진행합니다.

3.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 찬양부장이 인도

4.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20분 이내)

- 말씀나누기 진행자가 담당합니다(성경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에 초신자가 맡으면 좋습니다).
- 모든 목원이 간단하게 돌아가며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누는 중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내용을 나눕니다.

5. 연합교회 광고 나누기

- 주보를 활용합니다.(VIP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6. 목회자 칼럼 읽기

- 지난주 목회칼럼을 읽어줍니다.(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공유)

7. 목장 약속문 함께 읽기

8. 삶 나누기

- 지난주 기도제목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나눕니다.
- 감사했던 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나눔 시 “기도하면 됩니다” 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목장에 나온 지 오래된 분은 깊이는 유지하되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VIP 등 새로 오신 분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9.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 모든 나눔 후 두 명 정도씩(부부, 가족 등) 묶어서 짧게 중보기도합니다.
- 목원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마지막에 목자가 장소를 제공한 목원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 선교지와 VIP를 위한 기도

- 후원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선교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 VIP는 가족, 친지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자주 만나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활용합니다.

11. 목회일기 작성

목장모임 말씀 나눔지

(7월2일 주일설교/신명기16:9-12/맥추절의 영적교훈)

9 "그로부터 일곱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이레를 세십시오. 10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킵시오. 11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12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킵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한달 보름에서 50일 정도쯤 되는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이전과는 다르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름 아닌 십계명, 곧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부터는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말씀을 너희 삶에 센터에 놓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나가는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할 때는 말씀이 흥왕할 때였고,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는 언제나 말씀이 빛이 희미해질 때였습니다. 신약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생활의 원리가 되고 꽃대가 되어질 때 신자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지쳐있다가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의 기본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첫 열매(보리추수)를 거두는 절기였습니다.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들의 머리 속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들 가정의 첫 열매, 즉 장자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곧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생명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심으로 너희들이 ‘첫 열매’를 보면서 드는 그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맥추절을 맞이하여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맥추절, 곧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추절 곧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진정한 신약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을 경험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곧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로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불이익도, 손해도 감수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은 증인이 되어질 때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은 설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들어간 사랑에 감동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교훈 3가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여 행함있는 믿음생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내가 실천해 본 것(주일설교 말씀이나 성구암송/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던 감사제목 20가지 써보기/일터에서 작은 섬김이나 배려 실천해보기)을 목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목회자 칼럼

“우분트”(UBUNTU),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해 준 다음 ‘시작’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각자 뛰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가서 그것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의아해하면서 아이들에게 “먼저 뛰어가면 그 사람이 혼자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우분트”(UBUNTU)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분트!” 반투족 말로 “네가 여기 있기에 내가 있다”(I am because you are)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자주 강조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분트!!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것만큼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계신데 곧 목장입니다. “우분트,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라도 목장식구가 되는 것이 등록의 조건임을 알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되나요? 목장을 꼭 선택해야 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던 초창기 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성도님, 적지 않은 세월 교회를 다니셨는데 성도님이 정말 가족처럼 느끼시는 분들을 몇 분 정도 알고 계신가요? 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알고 나를 보고서 ‘우분트’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성도님 곁에 계신가요?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물론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가족’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반대로 ‘갈등’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즉 진짜 가족이라면 행복만 있지 않고 갈등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두려워서 가족을 떠나서 “나는 혼자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길은 곧 ‘우분트’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손목사-

☎41068대전시 유성구 반석로11번길90-23(반석동661)

☎(042)826-9191~4, FAX(042)822-0691

http://www.inhappy.org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식사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등록절차>를 보시고 새가족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맥추감사주일

- 1)2023년 상반기를 보호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기시느라 수고하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 2)맥추감사주일 헌금봉투 사용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시고, 써오신 감사 및 기도제목 카드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3)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및 특별찬무를 준비해주신 청년 다윗찬무단에 감사드립니다.

2. 일일특새 및 공동체 금식

- 1)일일특새 : 한달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대열에 많이 나오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한달, 그리고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내일 오전 5시30분)
- 2)공동체금식 : 일일특새를 하는 날 오전(6시-12시)을 행복한교회 공동체 금식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 1)유아부: 7월22일(토)~23일(주일) 2)유초등부: 7월14일(금)~16일(주일)
- 3)중고등부: 7월24일(월)~26일(수) 4)성글초원: 8월10일(목)~12일(토)

4.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다음세대 특별헌금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신앙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번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헌신 초청의 시간

- 1)헌신초청의 시간을 사용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신 감동에 반응하는 습관을 만들어나가실 때 승리하는 선순환의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 2)결단 찬양 중이나 축도 후에 3월과 4월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쓰시면 담임목사님이 기도해드립니다.

6. 중보기도

10개의 중보기도팀에 18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주시면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 모임 후 둘째 주간부터(7월10일~) 팀별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7. <말씀보화장> 성경 통독 23주차

- 1)이사야 11장~ 예레미야 4장까지. 2)말씀수첩 구입은 1층 교역자실에서.

8.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삽지로 넣어드린 하반기 평세 일정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 교우소식

- 1)등록: 최도진(최효정)성도님, 꿈꾸는목장(민안기목자)으로.
- 2)교역자 휴가: 담임목사(3일~7일)

성구암송

하박국 3:18 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